

행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꿈에 따라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수도회원으로서 누구인가?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본래 의미는 “재속포란치스칸  
단체인가? 이 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교회, 평화, 정의 그리고 복음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재속포란치스칸 회원으로서는,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는

**배경**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모든 것이  
참고: 본 문서를 읽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이 다르고 있고 질문을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Instrumentum laboris 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잠시 개인적인 복상 시간을 갖는 것이

**복상:**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이 사랑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자서안에 기록하셨다.  
(선 보나벤투라: 대전기 XIII)

**사랑을 통한 교회, 형제회, 세상의 재건**

당신은 사랑입니다

Instrumental Laboris

2024 년 총회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은 매우 간단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손이고 희망이고,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바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1요 4,16). 하느님은 “당신의 형상과 닮은 모습으로” (창세기 1,26)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셨듯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총만함보다 덜 주실 수도, 덜 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과 우리 자신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의 총만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헌신과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의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던, 봉사를 위한 시간이던, 우리 가정의 문을 열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요한1서 4,7-12: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재속프란치스칸 으로서, 우리는 우리들의 존재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숙지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행동이고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에게 내어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랑입니다.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 “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을 없다” (마르코 12,28. 30-31)

우리들의 사랑하는 성 프란치스코 사부님은 그의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권고”에서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주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태오 12,30) 사람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태오 22,39) 사람들, 악습과 죄악과 더불어 자신들의 육신을 미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오! 그런 일을 실행하며 항구하는 남녀 모든 이들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주님의 영이 그들 위에 내리실 것이다. (이사야11,2)

우리들의 1978 회칙, 생활양식의 머릿말도 같은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온전한 사랑이며, 단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 **당신은 사랑입니다: 2024 년 총회 중심 주제**

###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완전하고 끊임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분과 비슷하게 그분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완전하고 끊임없는 순수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인 사람들이 인간 자녀들은 이 사랑을 온전히 감사하지도 인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아시고, 당신의 외아드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도 아시면서 하느님의 완전한 자비안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시는 위험까지 무릅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이 되라는 기대 외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 가정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주셨습니다.

1 코린토 13,4-8a :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1요 4,8) 이 모든 속성들이 하느님께 귀속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사랑인 우리 역시 이 특성들을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용어정의 : 자선 활동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박애, 사랑의 행위, 자선의 행위,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

**에로스, 필리아 (정 혹은 집착하는 사랑)?**

재속프란치스칸 으로서 “우리는 사랑 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 우리는 우리가 열망하는 존재에 대해 완전하고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재속인의 삶의 여정 속 에 경험, 헌신, 깨달음 등의 제각기 다른 수준의 사랑의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그 아름다움과 목적이 있습니다.

용어구별을 설명하다 보니, 성경의 번역가들이 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딜레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계의 사랑들은 그 의미와 맥락이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최대한 명확하게 구별 지으려는 시도 속에서 용어들 자체가 종종 상호교환 가능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의미의 본질성은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완전한 진리에 기초한 완전하고 도 조건 없는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우리들의 체험 과 이해는 더욱 구체화되고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자기희생이 요구합니다.

**사랑 :** 사랑이라는 용어는 : “나는 내 수업들을 사랑합니다” 서부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사랑합니다”,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의 전체 영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일반적 단계는 우리가 기쁨과 충만함으로 “우리는 사랑입니다”를 외치기에 앞서 더 넓고 깊은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로스(로맨틱 사랑):** 재속인으로서,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고 결혼할 예정인 이들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친밀감을 통해 낭만적 사랑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과 세월속에서 성장하고 그 사랑의 깊이는 서로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어 주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를 자신보다 우선시할 만큼 그들을 더욱 친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같은 애정적 사랑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만, 이 한 쌍의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에 두고 상대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기 희생이 있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형제애(필리아)** : 부모, 자식, 형제 또는 이웃의 사랑은 다른 영역의 애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자기 희생과 배려적 돌봄이 있는 사랑의 또 다른 유형이지만, ( )로맨틱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에야 하느님의 사랑이 됩니다.

**박애** : 세계 박애주의자들은 인류의 문제를 보고 그들의 자산, 시간, 재능, 금전, 재산 등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런 박애주의자들이 아니었더라면, 병원, 학교, 박물관, 의과학연구소 등을 포함하여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밖에 많은 프로젝트들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단계 또한 그들이 제공하는 도움의 이유과\*\* 이를 위해 수반되는 희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아씨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박애주의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입고 있던 코트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병환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단맛을 깨닫기 전까지, 즉, 다른 사람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 역시 하느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유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었기에 나병환자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서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셨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한테서 떠나올 때에는 역겨웠던 바로 그것이 내게 있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자선** : 자선 기부는 사랑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선 행위는 오직 개인이 이 행동을 수행할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단지 자선의 필요성만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적 사랑** : 재속프란치스코로서,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들의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헌신과 자기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헌신에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의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없는 진리는 우리들의 행동안에서 온전히 현존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삽입 주석을 제공하는 **확대역성경(The Amplified Bible)**은 아가페적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때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할 때는)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렵듯이 보지만 (흐릿한 형체, 불가사의, 수수께끼),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때 우리는 실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 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단편적으로만)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 (하느님과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희망(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고한 기대)과 사랑(나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자라나온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 이 세가지(최고의 은총)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코린토 13:8-13)

성 프란치스코는 나병환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 위의 벌레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첫 생애에서**, 첼라노의 토마스(c. 1185 - 1265)는 아씨시의 성자가 “하느님의 타오르는 불”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벌레의 존엄함까지 본 것이며 벌레에 대해서도 그는 따뜻한 사랑을 품었습니다.” 첼라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구세주에 관한 구절들을 읽은 이래로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들을 길에서 들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옮기곤 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아가페 사랑의 수준으로 승격된 것은 그가 창조물 속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형태	부연 설명	성경적 참고자료
<b>사랑 : 사물이나 또는 사람에 대한 내면의 애정</b>		
에로스	로맨틱한 사랑	<u>요한복음 2,1-11</u> : 가나의 혼인잔치
박애	전략적 관리 로 불우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지원	<u>잠언 11,25</u> : “ 축복해 주는 이는 자기도 흡족해지고 마실 물을 주는 이는 자신도 흠뻑 마시게 된다” <u>사도행전 20,35</u> : “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행복이 있습니다.”
필리아	형제애 :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 배려, 존중, 그리고 (궁핍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u>이사야 49,15</u> : “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p>자선</p>	<p>진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사랑 - 그들이 가진 것이 적을 때에도 베풁니다.</p>	<p><u>마태오 12,35, 40</u> :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p>
<p>아가페 사랑</p>	<p>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결정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 오직 하느님과 그분의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으로써만 아가페적 사랑을 보여주고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실한 믿음, 헌신, 의지의 행위등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p>	<p><u>요한복음 4,8</u>: "사랑에 실패한 자는 결코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u>요한복음 15,13</u>: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p>

**재속프란치스코칸으로서 프란치스칸 역사를 바탕으로 사랑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드러냅니까?**

본 Instrumentum Laboris의 주제이자 주요 과제인 “당신은 사랑 입니다”는 우리 프란치스코의 뿌리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라핌 적 사부님 인 프란치스코는 회심 후 그의 전생애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자매인 지구와의 친밀감, 교회를 위한 끊임없는 봉사,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형제들에 대한 인내와 배려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가족으로서, 성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순간들, 즉 우리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우리를 날마다 회심으로 부르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성 프란치스코 8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이 사랑을 실질적이고 심오한 경험으로 표현한 프란치스코의 삶의 순간들을 재현하고 축하하면서, 우리는 재속프란치스코로서 여정에 우리의 사명과 카리스마와 목표를 상기하게 됩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800 주년을 기념할 다각적인 기념식: 2023-2026” 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우리 정체성의 심장부로 이끄는 수많은 주제 들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의 성찰과 숙고 를 위해 이러한 목표들 중 일부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회칙(1223-2023)** : “회칙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에 의미와 의의를 부여합니다” – 생활방식을 재고하고 새로운 형태의 봉사를 활성화하며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사랑의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회칙입니다.

• **그레치오의 성탄절(1223-2023)** :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 인류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시각을 발전시키는것, 즉 분열과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견해를 발전시키는 것 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연약한 어린아이로 겸손 되게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관심과 희생, 끊임없는 보살핌과 온화함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 **성흔의 선물(1224-2024)** : “교회의 일원으로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사랑을 증거하는 삶에 헌신\*\*합시다; 우리 자신이 일상의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들에 감응하게 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합시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포용하고 그들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 **피조물의 찬가기념(1225-2025)** :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치유를 촉진하고 본래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교회적 책임을 더 잘 인식하는 것입니다 ”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부활절(1226-2026) 기념** : “교회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아낌없이 보답할 수 있는 기회로 복음화를 실천하는 것 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삶의 훌륭한 순간들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현실속에서 어떻게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회칙과 회헌 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 들을 사랑으로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회칙과 회헌들은 우리가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사랑이 되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입니다. 재속프란치스칸 회칙, 특히 제 2장, 생활양식, 4조-19조는 우리가 따라야 할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봉사와 생활 양식에 기초가 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각 조항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증거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랑에 대한 요소들을 각기 더하고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사랑의 영적. 실천적인 지원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칙 4조에 의하면 우리는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가야하는 소명을 받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 없이 결코 이론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일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표현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느님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견고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하는 입니다. 성부의 사랑의 선물인 성자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로 가는길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입니다 \*\*

종종 사랑의 영적인 측면들은 2장의 다른 조항들에서 확인될 수 있는 실천적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OFS 회칙 제4-19조에는 아래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집중(5조)
- 사제들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과 교회의 재건(6조)
- 매일의 회개와 기도에 대한 헌신 (7-8조)
- 복되신 성모님의 자기 봉헌 본받기(9조)
- 개인의 상황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기(10조)
- 현세의 것과 분리된 영적인 추구, 지구의 선한 청지기, 행복선언의 정신으로 살아가기(11조)
- 하느님과 형제자매들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 (12조)
- 하느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13조)
- 더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계 건설 (14조)
- 대화를 통해 정의, 평화, 창조의 온전성, 조화를 증진 (15,17,18,19조)

- 노동을 선물로 받아들임 (16조)
-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에게 프란치스정신을 배양(17조)
- 자매인 죽음을 침착하게 준비 (19조)

우리 OFS 회헌은 삶속에서 사랑의 실천방법을 강조하고 제공합니다.

아래와 같이 몇몇 예시가 있습니다.

- 사랑이 표현되지 못하게하는 죄를 거부하게 하는 점진적인 마음의 변화, 즉 새로운 회개의 여정 지속(8조 2항)
-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을 따르는데 중심을 두는 삶의 계획(9조 1항)
- 행복선언 (진복팔단) 정신을 살아가는 삶(15조 1항)
- 우리들의 삶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17조 1항)
- 하느님께 대한 참된 예배자가 됨.(12조 3항)
- 정의 구현을 위한 모순의 가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받아 드립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반대되는 교리들을 거부하며 평화의 프란치스칸 정신을 산다.(10조)
- 가난의 정신을 산다. 복음적 가난은 성부께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내적자유를 구현하며, 재물을 더욱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한다; 노동과 재물로써 자기 가정을 부양하고 사회에 봉사한다. 이를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해 강한 개인적 헌신이 요구되며, 삶에 대한 공동 성찰, 교회의 가르침과 사회의 요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하는 형제회의 자극이 필요하다.(15조 1,2항)

한 번에 한 조항씩 집중하며 , 전체 회칙과 회헌 을 묵상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심어 주신 사랑을 재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반인 기도를 통해 가족 공동체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 5.복음화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세계는 다른 세상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어린이와 성인 들 모두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해 그들의 생각을 산만하게하는 것들 , 그릇된 정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방식에 대한 공격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집중할 시간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기로 서약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삶과 종종 정반대되는 세상으로 모험을 떠날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현실적 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인 이유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폄하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두렵나요?

우리가 감히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지하는 수도회와 형제회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지지로 무장하여 사회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그것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 형제회 안에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회칙 19조가 우리 형제회에 살아있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형제적 일치와 화합의 방법을 모색하며, 모든 사람안에 있는 신성한 씨앗의 존재와,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믿는것..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완전한기쁨의 선포자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하고있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 든지 기쁨의 선포자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하고있습니까?

## **6. 우리의 양성 프로그램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첫째가는 계명은 “주 하느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두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중요한 측면이요소라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살고 이를 환영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를 청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형제회 생활속에서 사랑은 드러나나요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성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은 언제 제기됩니다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주는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만이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형제적, 사목적 방문시 방문자들은 양성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 형제회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즉회원들 사이에 형제적 일치가단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회원들 간에 상호수용과 개방적이고 진실한 관계를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회의 영적생활, 재정현황, 어려움, 기쁨 등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은 형제회 생활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양성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질문합니까? 아니면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일 중 일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이므로 당연히 받아 마땅한 것이라 여기며 받기만 합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우리가 주고 받는 사랑, 우리 자신을 일컫는 그 사랑의 선물 은총을 다루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까요? 우리의 양성 시간에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우리수도회의 창설 의미의 일부인 사랑에 대해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 7. 사회생활에서의 사랑

교황 비오 11세는 1927년 12월 18일 가톨릭대연맹 리더들에게 향하는 연설에서 “정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칙 제 15조는 다음과 같은 교황님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삶과 그들의 주도적 용기로 있는 선택으로 증거하여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정의구현에 앞장서도록 한다 의 선두에 나선다. 특히 공적생활에서 그들의 신앙에 걸맞는 단호한 선택을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에는 사랑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헌 제 12조에보면는 세상에서 살고 일하는 조직으로일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가페적 사랑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을 명시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헌 제 12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원들은 프란치스코의 모범표양과 글에 영감을 받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 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신앙을 살아갈 것이며 성부를 증거해야 한다”(회헌 12조). 이러한 사랑의 삶의 첫 단계는 하늘에 계신 성부와와의 대화와 기도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 것 음 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헌 12조는 계속 언급합니다: “회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서, 일터에서, 기쁨과 고통 가운데서,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들인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사회 생활에서의 참여와 현존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의 형제적 만남 안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 삶 모든 영역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일터나, 노는 곳이나, 기도하는 곳이나, 우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함께하고 있는 곳이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곳 등 어디서든지 해당됩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의 피조물과도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서약한 회원으로서, 이 기쁨을 널리 전하확산시키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책임이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안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회헌 제 12조 2항에서 다음 사항을 상기시켜줍니다: “...사회 생활에서 용기있는 선택이 수반하는 위험을 어려움과 용기로서 선택해야 하는 위험을 침착하고 단호하고 평온하게 수용해야 한다.”

오늘날 현실의 도전을 고려할 때, 재속프란치스칸은 우리의 사랑에 기초한 선택이 때때로 비판받고 경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진리와 기쁨과 사랑을 담대히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사회적 장애물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회적 장애물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헌 제12조3항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각자의 마음과 인간 역사와 자연 안에서 성부의 현존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신비에 대한 관상은 회원으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의 계획에 협력하게 한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연 그 자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각자의 개인기도는 우리들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 그 자체가 될 수 있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볼 수 있고, 우리들의 사랑과 삶이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느님 계획안에서 행동할 수 있고 심오한 아가페적 사랑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 **8. 청소년, 특히 YouFra 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청소년들의 일부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다양한 활동과 기도 및 영적생활, 사상과 창의성을 북돋우는 훌륭한 교육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함께 참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산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대화를 제공해주는 부모들과 가족들과 함께 균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유프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들의 어린 형제 자매들인 유프라와 함께 하는 우리들의 여정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지원해 줌으로써 하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프란치스코 성인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기쁨을 강화시켜 주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기쁘게 여정을 살아갈 프란시스코가 되기를 고려할 때 축하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로 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세상에서 이 프란시스코의 방식은 그들의 지지와 구원이 될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 눈에 아무리 그들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소중한 생각과 믿음 즉, 진리이신 하느님을 찾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점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삶의 선택에서 통찰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스스로가 결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들과의 토의와 열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우리들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라고 믿는 만큼 그들이 우리에게 생기를 생명을 주고 지원하는 하느님의 도구라는 사실은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진실로 단연코 사랑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유프라는 우리에게 대화에 마음의 문을 열게되는 능력, 즉 시노달리티(Synodality)를 가르칩니다.

이런 범주 반대편의이들과 정 반대편에 서있는 청소년 들을 보자면 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실은 때때로 우리들의 청춘을 고립되고 길 잃은 통로로 이끕니다. 죽음의 문화, 쾌락의 문화, 온라인 게임의 문화 등 오직 지루함과 소중한 시간 낭비만 자아내는 문화 속에 뿌리를 둔겨있는 고립되고 길 잃은 곳으로 이끕니다. 통로입니다. 그들은 평평하고 어두운 컴퓨터 스크린 외에 시간도 재능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보여주지** 성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적인 삶이나 건전한 오락을 위한 여유는 거의 남겨놓지 않고 또 다른 시간낭비에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또는 최악의 경우, 불법 마약이주는 위안이나 순간적 쾌락을 줄 뿐주는 파멸의 길로 이끄는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중, 대부분의 시간들을 위에서 묘사한 사람들과 같이 길 잃고 억눌린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길 잃은 아이들과 양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내어줌으로써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그들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를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접근해서 그들과 유익한 대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기도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지 알려주고, 기쁨충만한 모임과 소풍야외 나들이 등에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선택과 그들을 우리들의 사랑 안에 포용할 생산적인 연결고리들을 제안할 생산적인 출구 제안 등 우리들의 사랑안으로 그들을 포용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젊은이 들은 교회와 시노드 과정 안에서 무수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교회안에서 귀 기울여줄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시노드는 그들도 교회속에 일원이라고 느낄수 있는 폭넓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는 중요하고, 그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 **9.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재건하려는 우리의 사랑과 의지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시노드 방식의 주역 주인공이었을까요?**

평신도들의 기여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 필수불가결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은 그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 온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폄하되거나 무시되거나 폐기되거나, 책상 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시노드 2023년 10월 28일 최종보고서 10번 축성된 삶과 평신도 공동체;카리스마적 표징)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이 시노드의 길은 교회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노드의 정신을 따라야 하고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협력함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그럼으로써 교회가 변화의 방향을 수립하고 교회의 근본적인 믿음들과 창설정신과 전통의 재확립 인 을 시작하게 됩니다.

- **10.도전**

누군가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그 범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마을을 떠돌아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흐느껴 울며 “사랑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Fonti Francescane, no.1413)라고 말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랑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우리들도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하느님, 가정, 형제, 자녀, 공동체와 사회,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세상을 위한 등을 향한 사랑의 결여라는 다양한 징후들 모습에 민감 취약한가요?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6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랑의 신비에 대한 묵상과 함께 우리들의 자비를 세상에 쏟아 부으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나무 십자가 위에서, 악이 마가 의인 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무관심이라는 오염물을 흡수하고 세상에게 사랑의 깨끗한 공기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나무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관심을 들이마시고 사랑을 내뿜는 생명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나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자기 몰입적이고, 진리와 정의를 두려워하며, 하느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을 거부하는 현 세상에서 우리가 의 사랑이 되고자 할 때 하는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모든 상황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우리 스스로 자신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필요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고 솔선수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소외 됨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순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재속프란치스칸조차도 혼란스러움에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거짓 형태의 사랑은 필요, 욕망, 감정, 기대, 만족 등 모두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세워진 세속의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 중심, 즉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칙 7조는 우리에게 이를 상기시켜 줍니다.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 **11. 형제적 관계 수립에 있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약화시키는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지 않은 거짓된 가르침에 세뇌된 적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 진실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나요 ?

그 질문에 답을 한 후, 사랑에 공격을 퍼붓는 세상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명하게 이해되었고 받아들여졌던 진리가 지금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의 성 정체성조차도 일부에 의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을 용인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 인이데올로기,



정치이데올로기, 낙태, 안락사, 전쟁과 평화, 혼동거, 동생결합, 어린이와 배우자 착취, 기후변화 등에 관한 신념과 도덕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기 앞서, 우리는 형제회나 개인으로서 상기 주제들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고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숙고하고있습니까? 거짓 낭설에 대범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우리는 그룹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어느 편에 서있습니까? 하나의 수도회로서 우리는 이 현안들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존중하며 인정하는 동시에,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확고히 서서 이러한 문제 들을 현명하고, 정직하게 , 사랑을 가지고 다룰 수 있습니까? 우리도 술탄을 방문했때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될 수 있습니까 ? 그들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서로의 차이점 존중했고 우정이라는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 **12.특히 단위 형제회에서 형제애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각급 형제회 내부와 평의회 내에서 일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형제회도 완벽한 형제회는 없습니다. 형제회원들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평의회나 평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에 각각의 저마다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리더가 책임을 가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역할분담을 해줍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리더가 책임을 포기하여 진정한 리더십과 활력부재로 형제회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들의 목표는 청지기 리더십 모델을 취하는 것으로, 책임감 있는 리더들이 회원들을 존중하는 맘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며, 도움을 제공하고, 경청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기도로써 회원들이 해결책을 찾아가는데위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형제회 갈등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부족, 형제적 사랑표현의 어려움, 청지기 리더십을 무시한 리더십 유형, 위에 언급된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현안들, 재정적 문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회원들의 부족, 특배려를 필요로 하는 노령 회원들, 개인적 계획을 가진 회원들, 그리고 그 밖의 기타 사항들 이 있습니다. 각각의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형제회의 평의회는 해결점을 모색하거나 그들의 영적성장을 돕기 위해서 회원들과 직접적으로 일해야 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평의회가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상급평의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성 원칙을 존중하며 (회칙 제 33조 2항) 상급평의회는 하급평의회나 형제 자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각 급 평의회들은 사랑과 소통의 정신으로 하나의 세계적인 수도회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수도회는 각 급 형제회를 지원하며,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아가고, 형제 자매들에게 수도회의 우선 과제를 보고하고, 각 급 형제회 레벨에서 어떻게 이 최우선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상급 수도회로부터 겸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 • 요약

성 프란치스코의 삶의 중심에는 하느님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3천년기를 살고 있는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로 자신을 열어야 하는 중대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소개시켜주는 것 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의 사명은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앞선 세대들과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요? 차세대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컴퓨터 화면과의 소통에 만족을 찾는 이 사회를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대사회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그 모든 드러난 실체와 의미속에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모든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듯이 사랑 또한 소중히 간직되어야 하지만, 서로 나누기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세계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개혁자\*\*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또다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정보와 이념적인 대립이 발생하는 이 세상은 사랑의 증인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 사명을위해 재속프란치스칸은 새로워져야 하고 재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Instruction\*\*\*\*

Instrumentum Laboris를 읽고 토론한 후, 국가형제회와 회원들은 아래의 질문에 대해 묵상후 답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ciofs@ciofs.org](mailto:ciofs@ciofs.org)로 CIOFS에 답변을 보내주세요

국가형제회의 묵상/응답은 종합되고 요약될 것입니다.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에 대한 제안을 개발할 회장단이 담당합니다.

이 제안은 전 세계에서 참석하는 국제 평의원들의 총회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의장단 들이 함께 모여 국제 평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국제평의회는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지침을 수립하며,  
향후 3년간의 수도회와 회장단의 운영 방향을 검토 합니다.

그리하여 응답을 제출하고 잘 준비하여 현장에서 좋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회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 **국가 형제회와 각급 형제회의 봉사자들에게 드리는 질문 :**

1. 재속프란치스코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통한 교회와 형제애와 세계의 재건”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교회에게 우리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2. 예수님과의 강한 관계성 없이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사랑을 성찰하며 성 프란치스코 800주년을 계기로,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안에 있는 이웃들과의 사랑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3. 재속프란치스코회내의 다른 급의 형제회들과 협업시 어떻게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양성 프로그램이나 의사 소통시, 또는 회칙[회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법적, 도덕적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사랑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자비와 정의를 보여주었는지 몇몇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4.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면서 재속프란치스코회 차원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행정적, 재정적 현안과 연계된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5. 하느님과 이웃 사랑의 예시로서, 우리는 어떻게 국제 재속프란치스코회와의 소속감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6. 형제애, 상호 배려 및 돌봄의 표현으로써 재속프란치스코회와 유프라가 단일 카리스마 안에서 어떻게 함께하는 여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7.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것 외에 제안할 사안이 있습니까?
8. 상기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을 토대로, 우리 국제 재속프란치스코회가 다음 3년동안의 최우선과제로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

\*참고자료: 모든 성경 인용문은 예루살렘 성경에서 참조하였습니다.